# 安東權氏宗報

# 陵洞春秋

http://www.andongkwon.or.kr

ISSN 1739-9203 05

제125호

2009년 5월 1일 금요일 · 매월 1회 1일 발행
음력 己丑年 權氏紀元 1080년 4월 7일 丙午

발행인겸편집인 權五焄 · 인쇄인 洪政旭

발행소:주식회사 안동권씨종보사 · 경북안동시북문동24-1· 760-120
전화(054)857-7714 전송(054)857-7715
서울분사 : 서울종로구필운동288-1· 110-044 전송(02)738-8935
전화(02)723-4480· 732-919· 735-7179
등록: 경북라-0105호[99.4.7.] e-mail : webmaster@andongkwon. or. kr

주간權琪奉 · 기자權奇允 / 편집고문權宅鎭 · 權五庠 · 權赫來
편집위원權在琮 · 權海兆 · 權甲鉉 · 權五達 · 權容根 · 權奇爀(客員)

종원회비1년2만원 / 계좌: 우리은행 1005-601-070006(주)안동권씨종보사


## 宗 說 낭중공 이단추진의 망동

청도의 공암촌이 안동권씨의 이목에 떠오른 것은 조선조 중후기이다. 단소의 비문에도 숙종 1년, 1765년에 영남어사로 나간 27세손 하계霞溪공 유愈(예판、문형)가 정자동에 권릉으로 속칭되는 대총이 있음을 수탐하고 이를 수축할 것을 제의해 경향의 종중이 두루 알게 되었다. 이로부터 70여년 뒤 26세손 정간공靖簡公 혁爀이 영백嶺伯으로 나가 심험하였고 이를 전후하여 토성土姓 월성최씨 문중과 송사등 분규가 있다가 당세 문중사에 앞장서던 28세손 학림공鶴林公 방訪이 또한 권릉에 봉토할 의논을 일으켰다. 그 50여년 뒤 영백이 되어 나간 32세 이재상공彛齋相公 돈인敦仁(영의정)이 심험하였고 1931년에 전관찰사 수정공遂庭公 익상益相이 왕래하며 설단을 추진하여서는 문중의 유지원로들과 숙의하고, 1934년에 능동당회에서 최종결의하고 1935년에 일을 마쳐서는 삼구하정三九下丁에 세이사世二事를 받들되 그 예제를 시조묘사에 준할만큼 인신人臣의 제사로는 극경에 이르게 하였다.

단비문은 수정공 익상이 짓고 글씨는 승지공 병섭丙燮이 썼으며 1970년에 봉암재사를 중수하고 유허비를 크게 세우니 그 비문은 성균관장 중해重海가 짓고 그 비각은 또한 36세 승관昇官이 헌성하였다. 80년 전 단소를 봉축하고 봉암재사를 짓는 역사를 벌임에는 해서와 관북의 이북에 세거하던 후손 문중에서까지 구재모금을 하여 보내오니 그야말로 전국의 후손이 참여해 이룬 바였다. 이를 어떻게 일조에 훼철해 없이하고 비석만 어디로 옮겨다 놓고 그 부지와 위토는 매각한다는 것인가.

이런 일을 어떻게 사람의 후손된 자들이 모여서 남이 모르는 사이에 결정하고, 그 낯을 맑은 하늘과 밝은 햇빛 아래 쳐들고 다닌다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대저 효자손은 선조가 앉아 잠시 쉬어간 바위도 오히려 유적으로 받들어 누가 훼손할까봐 마음조린다 하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사람의 후손된 자가 그 부조의 기구청전箕冖靑氈을 받드는 것을 일러 긍구긍당肯構肯堂이라 했다. 이를 글자대로 풀면 기꺼이 얽어 짓고 기꺼이 당으로 삼아 지킨다는 뜻이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방방곡곡의 유생과 선비가 쏟는 원성이 충천했었다. 지금 봉암재사의 ‘철폐령’에 백만 권성인이 함원하고 있다. 대관절 이 함원과 함성이 두렵지도 않은가.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와 봉하리의 아시조 낭중공 단소와 일대의 유적은 우리 백만 권성인에게 성소이다. 이를 잘못 건드리고 훼손하는 자 무사하지 못할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향사를 받들기가 힘들어서, 참제자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재사가 도지정문화재가 되지 않아서, 안동에서 다니기가 멀어서 훼철하고 옮긴다면서 후손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등의 황당한 논리를 펴고 있다. 근자 조상묘를 파분해 화장해다 한데 모아 납골당을 만드는 일에 앞을 다투는데 그들도 제 중시조나 입향조 정도만 되어도 그 유택은 감히 건들지 않는다. 하물며 그 시예조始藝祖의 성역임에랴.

權在琮 편집위원

▲ 안동시 서후면 능동의 시조 태사공 묘소에서 춘계 향사를 올리고 있다.<관련기사 2면>

▲ 제21회 안동권씨 전국청장년 체육대회가 강릉공설운동장에서 열리고 있다.<관련기사 8면>

## 낭중공 단소 및 유적 수호 결의문

작금에 안동권씨대종회와 중앙종친회에서 경북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와 봉하리 일대에 소재한 안동권씨 아시조 낭중공의 단소壇所와 봉암재사鳳巖齋舍 및 유허비각遺墟碑閣 등 유적을 훼철하고, 이를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시조묘소하 능동재사陵洞齋舍의 보판각譜版閣 아래 포주 廚 옆의 거름밭에 이설하려는 망동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는 이를 신인공노神人共怒의 패륜적 만행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규탄 결의한다.

1. 구한말 경주시 왕신리 소재 시조 태사공의 운곡서원이 왕실의 힘까지 업은 불국사와 통도사 승려단에게 탈취될 뻔한 두 차례의 수난에서, 우리의 선대가 관아의 태장笞杖에도 굴하지 않고 지켜냈던 일을 상기하며, 현금에 우리도 신명을 바쳐 아시조 낭중공의 3백년 유서어린 유적과 단소를 사수키로 한다.

1. 대종회의 70여명 임원과 중앙종친회의 소수 집행부를 제외한 전국 70만 안동권성인의 9할 이상이 이번 낭중공 이단설의 영문을 모르며 이를 가당치 않은 망발로 여기면서도 현재의 대종회와 중앙종친회의 압력에 눌려 침묵하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이들 절대다수 안동권씨 후손의 총궐기를 유발할 촉매가 될 것을 자임한다.

1. 청도의 낭중공 유허와 단소가 멀고 오르내리기 힘들어 봉제사와 수호가 어렵다면 이를 훼철하지 말고 인접지역의 후손종회에 그 역할을 분리 이양하라. 우리는 별도의 낭중공종회를 새로이 구성해서라도 봉제사와 수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용의가 있다.

1. 조선 숙종조의 하계공霞溪公 유愈와 정조조의 학림공鶴林公 방訪의 탐심에서부터 비롯되고 80여년 전 1930년대에 남북한 전국의 권씨후손이 헌성하여 이룬 청도의 낭중공 유허와 단소를 훼철하고, 폐교를 구입해 들어온 기업체 연수원의 주차장과 부대시설의 확충을 위해 우리 아시조의 위토와 봉암재사 및 유허비각의 부지를 뒷거래로 매각하려는 책동을 중지하지 않는 한, 조상의 성역을 밀매하는 이들 주역에게 반드시 천주天誅가 있을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1. 이 결의문을 접하는 모든 안동권씨인 낭중공의 후손은 이 취지를 십분 요해하고 현재 대종회와 중앙종친회 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무도한 세력의 타도에 동참하기를 호소하며, 우리는 이들 새로운 대안 동력으로서의 문중 민심에 구심점을 형성하는 단초가 되어 저들에 대항할 강력한 실체기구의 탄생을 전도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9년 4월 10일 안동권씨기로회